

선거 막판 고소·고발 난무 '혼탁'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막판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불법 혼탁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실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선거사범은 100명을 넘어섰고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폭주, 정책 경쟁보다는 네가티브 폭로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12일 현재 도내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89건(117명)을 적발, 이중 3명은 경찰에 송치됐고 19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95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선거 유형별로는 후보비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형은 16건, 인쇄물배부 13건, 사전선거운동 10건, 현수막 및 벽보 훼손 6건 순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구도에 국민의당이 가세해 초박빙의 승부를 겨루면서 문자 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불법선거운동 89건 적발... 후보비방 35건 최다 초박빙지역 후보간 정책 경쟁보다 폭로전 먼저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메시지 선거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혼탁 상태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 선전과 고소·고발, 폭로전도 선거 막판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지역구가 조정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 캠프의 신경전은 급기야 고소·고발로 번졌다. 임정엽 후보 측은 지난 11일 안호영 후보 캠프가 임 후보가 공직 재직 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전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안호영 후보 캠프는 임 후보의 과거 알선수재 전과기록과 판결문을 공개, 양 후보간 폭로전은 확전으로 치달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나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와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후보 간 신경전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정읍·고창 선거구도 선거 막판 TV 토론회에서 '후보자 매수설'이 터져나오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익산갑 선거구에서 맞붙은 더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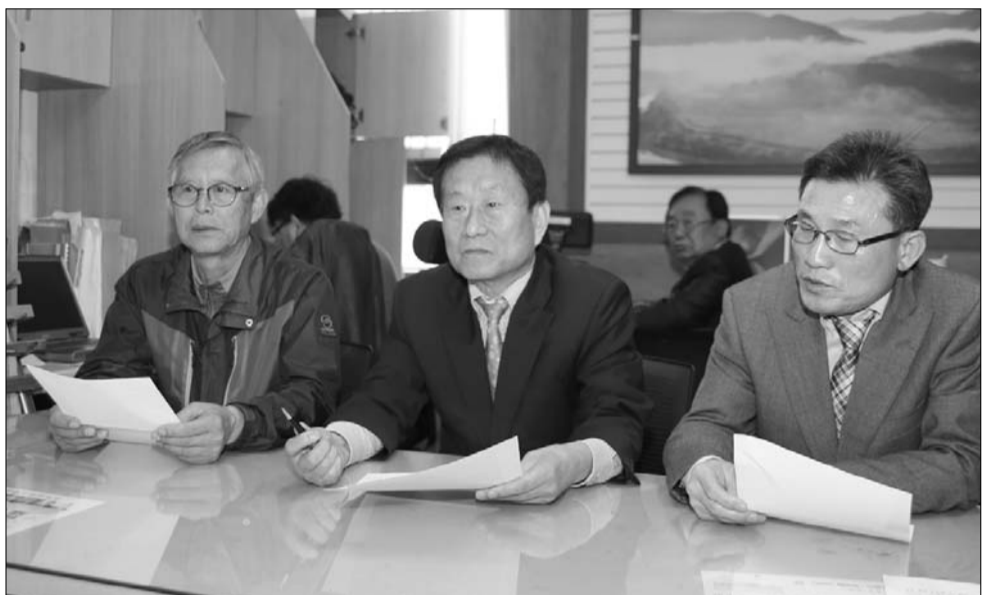
이춘석 후보와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도 각각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와 박병 승부를 겨루는 전주병 더민주 김성주 후보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정동영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탄소산입육상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전주를 선거구에서 초집전 승부를 다투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흑색 선전 문자 대량 발송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3당 구도로 치러진 선거 막바지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또 한번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특별취재반

차량털이 10대 2명 검거

익산경찰서는 12일 익산 일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털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10분께 익산시 신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이모(39)의 승용차에서 현금, 옷, 가방 등 총 3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를 자퇴한 뒤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5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진수 기자

농촌 노인에게 가짜 비아그라 판 50대 중국교포 여성 구속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비아그라를 판 50대 중국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12일 농촌마을 노인들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상표법 위반)로 중국교포 서모(5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3년 12월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가짜 비아그라 600정을 들여와 장수, 남원 등 농촌지역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노인층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계좌이체 통해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후보자 매수 의혹 진실 규명하라 12일 오전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일 TV토론회에서 불거진 총선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철저한 수사로 진실규명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는 지역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정읍경찰서 등 6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화견문을 읽고 있다.

전주시, 콘크리트 철거 후 녹화

화산체육관 부근 등 3곳

전주시가 건축물과 콘크리트 옹벽 주변을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시화산체육관 주변과 전주

야구장 주변 제레담 부근 등 3개소에 대한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업대상 지역에 조팝나무 등 관목류 5종 2100그루와 송아 등 덩굴류 4종 2870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지역의 화단(371㎡)과 블록포장(7.6㎡), 녹지경계석(13.1m) 등 콘

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고, 현무암경계석(371m)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콘크리트를 철거한 자리에 관목류와 덩굴식물을 심어 심미적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심 속 녹지를 증가와 경관개선, 소음과 복사열 저감효과 등도 기대된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복지시설 내 나눔숲 조성

선덕효심원·소화진달네집에

전주시가 복지시설 내 부지에 숲을 조성해 복지시설 이용자와 시민들을 위한 열린 쉼터로 제공한다. 전주시는 올해 삼천동 선덕효심원과 용복동 소화진달네집 등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치매 어르신들을 치유하고 지역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나눔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 복원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녹색자금 2억4000

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나눔숲 조성지 중 선덕효심원은 치매환자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어르신, 직원 등 130여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시설 내 기존 녹지공간에는 소량의 수목이 계획성 없이 식재되어 있을 뿐 치유를 위한 산책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또, 소화진달네집은 지적장애인과 직원 등 60여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기존 야외 휴식공간이 주차장으로 함께 이용하면서 시설 거주자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녹색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대학생·교직원 대상

전주시가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학생 흡연자 및 교직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전주보건소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자가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간 금연교육과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전주대학교와 비전대학교에서는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모주 단체표장 등록한다

시, 상표도용 막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위해

전주시가 전주에서 모주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시는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전주모주의 품질 보증 및 육성을 위해 '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타 지역 업체들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돼 전주지역 업체들의 재산권이 보호된다. 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최근 전주지역 모주 생산·제조 업체들로 구성된 '전주모주 생산자연 협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6월 중 법

인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모주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 명성의 연관성, 품질관리 교육 및 자체품질관리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시는 법인 등록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서를 제출 전주모주의 상표 도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나서게 된 이유는 최근 타 지역 모주생산업체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해 버젓이 한옥마을 등 전주 시내에서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한문화지원사무소 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가 전주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 질이 낮은 모주를 생산·판매할 경우 자칫 전주의 이미지와 전주모주의 상품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를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차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면접) 겸임교수
 ·면접지도 권역1호 강사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한국스피치&라더협회 전북 대표
 ·스피치&라더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저서: '355인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면접지도,개인지도,주말반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